



◇천년 역사가 서려있는 가지산문의 중심도량 보림사 일주문. 이 문을 드나든 선승들에 의해 한국 선불교가 뿌리 내렸다.



◇회양산문 봉암사에 있는 지증대사적조탑 (보물 제137호).



◇구산선문 최초가람 살상사는 불국대 한가운데 서있는 대표적 명지 가람이다.

# 한국 선불교 고향... 千年 화두 곳곳에

실상선문 북종선 전수...왕실과 가장 밀착

가지산문 도의선사 개창 性相不二 강조

회양산문 순수 국내 산문...일년내내 안거

## 구산선문



◇구산선문과 개창지

수 아래에서 깨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진귀대사를 만나 깨친 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다"고 설해 여래선보다 유일한 조사선을 주장했다. 그의 재자로는 형적·개칭·신의 등이 있으며 이산문은 강릉과 오대산 일대에 세력을 미쳤다.

창자 지증선사(824~882). 그는 다른 선문 개창자와는 달리 유학에 밝았고 선승으로서의 특별한 인연을 나타내는 탄생·꿈기·출가 등 6이(異)와 불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6시(定) 등을 주장했다. 봉암사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1년내내 오직 참선으로 수행·정진하는 도량이다. 이 사찰의 최대 자랑거리는 장중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137호)과 탑비(보물 제138호). 인근에 김용사와 대승사가 있다.

### 동리산문 (태안사)

중국 서당의 법을 받아 개창했던 또 하나의 산문이 바로 동리산문이다. 개조 혜철스님(785~861)은 839년(신무왕 1)

## 나말여초 104년간 아홉 선수행 도량 성립 본사 4월부터 '참선기행'...산문돌며 禪체험

중국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왕실과 연결해 산문을 이끌고 나왔다. 그의 재자로는 개성 중심의 공주지리산을 제창한 도선 이 있었는데 그의 사상은 왕건이 고려 국가를 건설해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찰에서 순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맞배지붕 건물인 옛 누각 동과각. 긴 역사에 비해 절을 이루고 있는 건물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단출한 느낌을 준다. 선원이 있는 언덕에 오르면 동리산문을 개창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인 조룡정탑(보물 제273호)에 이르게 된다. 태안사는 부도 이외에도 1454년(단종 2)에 만든 대바라 한쌍(보물 제956호)과 1581년(선조 14)에 제작된 명문이 새겨진 대웅전 동종, 해회당 마루에 걸려 있는 직경1m의 금고(金鼓) 등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인근에는 화암사와 천은사가 있다.

### 사굴산문 (굴산사지)

사굴산문은 범일스님(810~889)에 의해 개창됐다. 범일은 831년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장경의 법을 받아 837년에 귀국한 뒤 봉림산문을 만들었다. 그의 재자 심희는 김해지방의 가야계 김윤희와 연결해 봉림사를 열었고 이어 918년에는 왕건의 권유로 고려 왕실에 나가기도 했다. 이어 심희의 제자 찬유는 "동일한 진성(眞性)이 일심(一心)이며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태사상을 받아들여기도 했다. 현재 봉림사 절터에는 남아 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다. 봉림사지에는 본래 보림

사자산문 최대 번성 문파...적멸보궁 갖춰

성주산문 千칸 규모 대찰...화엄사상 융합

수미산문 이엄이 해주에 세워...왕정 도와

문을 열었지만 번성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재자 집효가 영월 흥녕사로 옮겨오면서부터 가장 번성한 문파가 되었다. 법흥사는 신라 선덕여왕때인 7세기 중엽에 가장 유서가 문수 보살 진신을 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 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에 둘러 적멸보궁을 지었다는 성스러운 곳. 사자산문이 문을 닫은 이후 명백한 유지에 오다가 1902년 비구니 대원각 스님이 중건을 하면서 흥녕사에서 법흥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 옛날 흥녕사 시절에는 구산선문으로서 이름을 떨치며 전국 도속(道俗)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오늘의 법흥사는 적멸 보궁 도량으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바치는 '나무석기모나불' 징근 소리가 사시시할 그칠날 없이 도량에 매이리 친다. 일철사, 구룡사, 정암사 등이 가깝다.

성주산문은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됐다. 무염국사는 821년(현덕왕 13) 중국으로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마국의 법을 받아 845년(문성왕 7)에 귀국, 남포지역의 호국인 김공과 결합해 성주산문을 열었다. 이 산문은 나말여초에 가장 번성했으며 무염국사는 여염·대웅·심공·자인·영인 등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특히 이산문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을 융합하려는 사상 경향을 가졌다. 성주사는 백제때의 오합사(烏合寺)가 통일신라때에 개칭되면서 크게 중창된 사찰이다. <송암산 성주사 사적>에서는

성주사의 규모를 불전 80칸, 행랑 800여 칸, 수각(水閣) 7칸 등 성주사의 규모를 거의 1천칸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때 소실돼 그 장엄하던 절이 송두리째 자취를 감췄다. 성주사터에는 오층석탑, 금당터의 석조 연못대좌, 세 개의 삼층석탑 등 불로된 것들이 그 형체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 부도비중 가장 큰 것으로 성주산문의 개창조사인 무염국사의 부도비 '대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옛 명성을 자랑하고 서 있다. 인근에는 무량사와 장곡사 등이 있다.

### 수미산문 (광조사지)

구산선문 중 가장 늦게 성립된 수미산문의 개창자는 이엄스님(870~936)이다. 그는 896년 중국에 들어가 운거의 법을 받아 911년(효종왕15)에 귀국해 산문을 열었다. 이엄의 재자로는 환보 재공과 왕유·이척량 등 전현직 고관이 있었으며 이들의 사상 경향은 대체로 왕정을 보위하는 성격을 띠었다. 광조사는 진철대사 이엄을 아끼던 태조에 의해 932년에 창건됐다. 그때 이엄의 나이가 63세에 이르렀으나 선종을 사모해 모여든 구도자(求道者)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선종을 진작시켜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수미산문의 전통이 확립됐으며 이 전통은 고려 왕정을 바치는 등대로 발전했다. 산문의 중심 도량인 광조사는 오래전에 소실됐고 이엄 즉 진철대사의 보살승 공비(寶月乘空碑)와 오층석탑이 남아 있는 것으로 <향해도지>에 기록돼 있다. 김주익 기자(jkim@budhopia.com)

### 실상선문(실상사)

구산선문중 가장 먼저 개창된 것이 실상선문이다. 개조(開祖) 흥척스님(?~828)은 중국 서당의 법을 얻어 826년(흥덕왕 6)에 귀국해 산문을 만들고 '정(靜) 하였고 때는 산이 세우지고 움직일 때는 골짜기가 울린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는 그가 북종선의 영향을 짙게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의 재자로는 편운과 수철이 있었는데 단의장승주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구산선문중 실상선문이 가장 왕실과 밀착됐음을 알 수 있다.

평경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존돼 흩어져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동(보물 제35호), 향견주의 유골을 모신 증각대사유골탑(보물 제38호)과 탑비(보물 제39호) 등은 실상사의 내력과 함께 고결의 역사를 웅변해 준다. 단종 기단위의 탑신 전체에 난간·선종(線宗)·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들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은 통일 신라 시대의 지혜와 향기를 맞출 수 있게 해 준다. 인근에는 생계사와 칠발암이 있다.

### 가지산문(보림사)

도의선사(783~821)는 859년(현안왕 3)에 왕의 청으로 보림사에 머무르며 김언경 등의 후원 아래 사원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산문을 형성했다. 이때부터 그는 성(性)과 상(相)이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폭하면 뜻이 일어난다(心足意興)는 화두를 강조했다. 이후 가지산문은 열거·체중·형미·진공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보림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 사천왕상과 긴 세월 속에서 재래와 위용을 한껏 뽐내는 삼층석탑, 석동(국보 제44호)을 만날 수 있다. 또 왼쪽 어깨에 세겨진 8행의 기록을 통해 보림사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커다란 불상인 철제비로 지나불좌상(국보 제117호)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근처에 있는 운주사와 쌍봉사도 가 볼만 하다.

### 회양산문(봉암사)

구산선문 중 유일하게 중국에 들어가 지 않고 산문을 성립시킨 회양산문의 개



◇37기의 삼층석탑만이 외곽에 옛 대가람 성주사지를 지키고 서있다.

### 사찰등(燈) 장엄불사-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월 각 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특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새디자인의 팔모 주름등

간편하면서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주름등입니다.

·규격 : 13cm

조립 팔모등

원통등

차갈이등

연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깃배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성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계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 794-40551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호곡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창